

뜨거운 관심 속 농어촌 기본소득 순항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장수군, 빠른 속도로 신청률 90.5% 넘어... 27일 첫 지급

장수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결과 신청률 90%를 넘어섬에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빠른 신청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20,922명 가운데 18,92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신청률은 90.5%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장수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 비율로 2년간 약 800억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뒤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27일 최초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단위 소비를 유도해 읍·면 전반에 걸쳐 경제



장수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빠른 신청 속도를 보이고 있다.

효과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자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에도 나섰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인구가 대폭 증가했는데 전입자는 811명, 전출자는 161명으로 인구 순증은 약 650명에 달해 1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1,015명으로 집계됐다.

약 2개월 만에 인구가 약 600명 이상 늘어난 셈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이례적인 수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

책이 실제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2월 27일 첫 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해 장수군 여건에 맞는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부 조성 대응 위해 전국 최초 추진단 꾸려

진안군은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 마을 조성에 발맞춰 주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안군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마을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00개씩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부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주)순화기술 등 전문가를 비롯해 한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중간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꾸려졌다.

이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 추진시 인허가, 금융지원, 전력계통 확보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2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관내 27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군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만큼 군은 2월 중 마을 간담회를 거쳐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여 3월로 예상되는 사업 공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대표 캐릭터 '뽀망'이 명예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4개월 만에 한 계급 승진했다.

진안군 대표 캐릭터 '뽀망', 명예공무원 8급으로 승진

진안군 대표 캐릭터 '뽀망'이 명예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4개월 만에 한 계급 승진했다.

진안군은 붉은 망아지를 형상화한 캐릭터 '뽀망'은 2020년 9월 17일 진안군 명예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이후, 각종 축제와 행사 현장은 물론 군정 주요 소식과 정책을 군민 눈높이에 맞춰 최근까지 전달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2월 2일자로 명예 공무원 8급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번 승진은 2020년 '붉은 망아의 해'를 맞아 더욱 의미를 더한다. 붉은 망아지를 형상화한 '뽀망'은 올해의 상징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으며, 진안군의 활력과 도전, 성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올해를 '뽀망의 해'로 삼아 군정 홍보와 관광 콘텐츠 전반에 뽀망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천춘진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출마 선언



천 춘마예정자는 군수가 되면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적극 활용, 군민들에게 월에 수십만 원씩의 수입을 보장하는 등 13개 분야 12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춘진(69)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천춘진 출마예정자는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지 1.077일째 되는 날이다"고 전제하며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

다. 이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매우 가슴 아프고 무거운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에서 보여 주듯 우리 진안군은 선거 브로커가 수천개의 대표 폰으로 여론조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우리 관리당원을 포함한 군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진안홍삼, 유럽시장 진출 위한 협력 논의 본격화

오스트리아 수입업체 판아시아·수출업체 골든힐 일행, 진안 방문

진안군은 2일 오스트리아 수입업체 판아시아(대표 정종환)와 수출업체 (주)골든힐(한문철 대표) 일행이 진안을 방문해 진안홍삼의 유럽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방성 교류가 아닌, 그간 지속돼 온 해외 교류와 협력 논의

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진안홍삼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지난 2024년 10월 진안홍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및 바티칸을 방문하며 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2025년 8월에는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이 진안군을 방문해 진안 인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논문을 공유하는 등 학술·산업 분야 교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이탈리아 파도바에 '진안홍삼 홍보관'을 개관하며 현지 홍보 거점을 마련해 진안홍삼 활성화 및 해외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판아시아를 비롯해 골든힐, 케이샷(대표 강광배)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일반음식점 대상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점검

무주군이 2일부터 6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42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식재료 관리와 조리 과정 전반의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가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보관 여부 △냉

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잔반 재사용 여부 △무표시 식재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 준수 사항과 시설 기준 이행 상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와 올바른 식품 취급 요령을 지도하고, '자율 점검표'와 '식중독 예방 수칙 포스터'를 현장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물' 최대 40% 할인 설맞이 특별 이벤트 추진

장수군은 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플 '장수물'을 통해 3일부터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장수물 전 회원에게 전품목 25%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함께 운영된다.

여기에 지역상품권 chak 카드에 충전 후 모바일 결제로 구매할 경우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적용돼 최대 40% 상당의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수물에서는 장수사과, 한우 세트, 깨떡볶이 등 신선한 농특산물은 물론 한우떡볶이, 유과, 부각, 식혜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홍삼, 즉류, 꿀 등 명절 선물로 활용도가 높은 건강식품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훈식 군수는 "대명절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에 장수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수를 화합과 임정 능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장수군은 농촌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해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 및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 지해 요인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훈식 군수는 "주거개선사업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생활 속 주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